

# “發明特許 연구開發

## 중요성 認識계기 됐으면...”

西獨 국제發明展 다녀온 代表團단장 **金常鉉** 상근이사

『우리의 발명품과 신제품을 국제무대에 인정받게 했다는 기쁨도 크지만 이번 경사가 온 국민들에게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효용을 인식시키고 발명의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간절합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간 西獨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89서독 국제아이디어 발명 및 신제품 전시회에서 금상 4개, 은상 7개, 동상 4개로 전세계에 국위를 떨친 韓國대표단의 단장 金常鉉 우리協會 상근이사는 발명기술발전을 위한 우리의 국민적 풍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발명기술의 발전에는 비약이란 있을수 없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이번 서독전시회를 다녀온후 더욱 굳어졌습니다. 훌륭한 발명기술업적과 뛰어난 발명인이 나올수 있는 국민적 풍토와 기반조성이 시급합니다.』

金이사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발명박물관과 과학발명전람회를 찾는 서독의 부모들에게서, 그리고 그 어린이들에게 하나의 작품, 하나의 원리도 소홀치 않게 설명하는 그 부모들의 정성어린 눈빛에서 독일

발명의 장래를 보는듯 했다고 부러워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발명적인 사고방식과 스스로 연구하고 실제적인 발명을 시도하게 북돋워주는 발명교육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는것 같아요. 극장에 가듯 국제적수준의 발명전람회에, 세계적 규모의 발명박물관에 가족동반 혹은 친구들과끼리 몰려 올수 있는 분위기가 오늘의 독일발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아닌가 해요.』

서독발명가협회등이 주관하고 西獨연구개발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프랑스 소련 헝가리 스위스 등 모두 16개국에서 3백50점의 발명특허품 등 신제품이 선을 보였다.

트럭 수대분에 출품작품과 부대설비 등을 싣고 국경넘어 찾아온 헝가리의 경우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발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엿볼수 있었지만 아직 기계와 전자부분의 기술수준은 우리에게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것이 金이사의 귀뜸이다.

우리나라는 새로 특허등을 취득한 발명·신제품들 중에서



17명의 25점을 선정, 출품해 韓國특유의 정교한 솜씨로 외국인들의 찬사를 얻어냈다.

우리의 금상수상작품중의 고단백사료와 시멘트방수제의 제조방법이나 전동기안에 브러쉬가 없는 무정류 전동기처럼 발명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것도 있지만, 텐트와 침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2축접기침대나 자동차 안전벨트의 自動解脫장치(銀賞)처럼 참신한 아이디어가 개발의 관건이 된 경우도 있다. 지난 75년부터 發明特許와 인연을 맺어온 金이사는 『日本의 경우 발명협회총재를 國王이 맡았을 만큼 발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출원·등록되는 특허의 80%가 외국인에 의한 것』이라며 온 국민의 발명하는 정신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 <外誌에서>